정용진의 뚝심 투자…대체육 신세계 연다

〈신세계 부회장〉

신제품 론칭…대체육 대중화 선언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 선봬
팝업스토어 등 소비자와 접점 넓혀
美에 자회사 설립, 해외 공략 가속



신세계푸드가 '더 나은 식품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과 함께 대체육 대중화 시대를 선언했다.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을 소개하고 있는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사진제공 | 신세계푸드

신세계가 계열사 신세계푸드를 통해 대체육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대체육은 콩과 버섯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로, 실제 고기와 비슷한 맛, 향,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대체육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관심 사업이기도 하다. 정 부회장은 2016년부터 신세계푸드를 통해 대체육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왔다. 지속 가능한 미래 식품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체육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져 성장성이 높고, 가치소비를 중시 여기는 2030 MZ세대의 지지를 받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대체육의 대중화 시대 선언

신세계푸드는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데블스도어에서 '베러미트 신제품 론칭 및 비전 설명회'를 열고, '더 나은 식품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과 함께 대체육 대중화 시대를 선언했다. 공장식 사육으로 길러진 고기 대신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육 시장을 키워 인류 건강, 동물 복지, 지구 환경을 이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론칭한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분야로 확장한다. 그 일환으로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을 선보였다. 대두단백과 식이섬유 등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회사 측은 "1926년 미국의 호멜 푸즈가 스팸을 개발한 이래로, 약 100년 만에 동물성 캔햄이 식물성 캔햄으로 바뀐 것에 의의가 있다"며 "산화를 막는 보존료인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게 특징"이라고 했다.

또 최근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식물성 정육 델리 팝업스토어 '더 베러'를 오픈하고 베러미트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비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말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뒤 대체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B2C 전문점을 오픈하거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향후 신세계푸드의 급식·외식 및 노브랜드 버거 등에도 베러미트를 적용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올반 간편식에서 사용되는 햄과 베이컨을 베러미트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 예다. 또 급식·외식 사업에 베러미트를 도입하기 위해 유명 셰프와 함께 샌드위치, 샐러드 등의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는 "베러미트를 단순히 고기 대체재가 아닌 인류건강, 동물복지, 지구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재, 즉 대안육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시장 육성에 나설 것"이라며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 선보였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베러미트로 촉발될 대전환의 노력이 국내·외 식품시장에 퍼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국에 자회사 베러푸즈 설립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중 대체육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미국에 대체육 전문 자회사 베러푸즈를 설립한다. 베러미트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베러푸즈를 통해 미국의 선진 연구·개발(R&D)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고도화 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대체육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개발에도 집중한다.

송 대표는 "향후 베러미트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체육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고, 국내 사업보다 해외 사업의 비중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K푸드가 한국만의 독특한 음식을 외국에 소개하는 전략이었다면, 베러미트는 햄과 미트볼 등 전 세계인이 이미 익숙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오일뱅크 손잡은 롯데제과 "ESG 경영 강화"

올레오케미컬 신사업 본격화
친환경 바이오디젤 원료유 공급

롯데제과와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서울 중구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에서 '바이오 공동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전략적 신사업 영역인 올레오케미컬 사업을 본격화 한다. 올레오케미컬은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비식용유지 사업영역이다.

롯데제과의 동·식물성 유지사업 경쟁력과 현대오일뱅크의 정유·화학분야 전문성의 시너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올레오케미컬 산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선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롯데제과는 현대오일뱅크에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바이오디젤 원료유를 공급한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제과로부터 공급받는 바이오디젤 원료유로 에너지원과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탄소저감 산업인 화이트바이오 분야에 본격 뛰어든다. 이와 관련해 2023년까지 충남 대산공장에 연산 13만 톤 규모의 차세대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양사는 장기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원료 조달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원료 조달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식품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이진성 롯데제과 사업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레오케미컬 사업에 양사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ESG경영 강화와 더불어 국내 유지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수 현대오일뱅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거래 수준을 넘어 다양한 공동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3일 (수) 음력: 7월 6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나아가라.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개띠생과 대화하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남편으로 인한 관재수를 조심하라.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이성문제, 탈선도 심하라.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이므로 안정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세가 요망 된다. 꿈과 이상이 현실화되기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원숭이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쥐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애경산업 '케라시스 퍼퓸 데빌스 에디션2' 출시



애경산업이 '케라시스 퍼퓸 데빌스 에디션' 시즌2(사진)를 선보였다. 중독성 강한 매혹적인 향기가 특징인 헤어케어 제품으로, 고급스럽고 풍성한 시트러스 향을 담았다. 아르간, 호호바씨, 스위트 아몬드 등 3가지 자연 유래 오일을 함유해 거칠고 푸석한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관리해준다. 세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해 모발의 수분 장벽을 강화하고 보습력을 높여 건조한 모발을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김병진 hy 대표(오른쪽)와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사진제공 | hy

hy-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 업무협약

hy가 최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헌혈자 물품지원, 정기적 헌혈 참여, 헌혈문화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 헌혈자를 대상으로 '잇츠온 신선란 10구' 교환 쿠폰 증정 등 물품기부를 통해 헌혈 참여를 독려한다. 또 연간 2회 임직원 대상 단체 헌혈을 실시한다. 김병진 hy 대표는 "기업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헌혈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전자랜드, 31일까지 냉장고·에어컨 파격 할인

전자랜드가 31일까지 여름 맞이 냉장고와 에어컨 할인 행사를 연다. 여름 시즌 교체 수요가 많은 냉장고를 할인 판매하는 '물가안정 99특가' 행사를 준비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베스트 행사 모델을 오프라인 최저가에 판매하며, 주요 냉장고 제조사 6개 브랜드의 중저가 행사 모델 역시 할인가에 선보인다. '에어컨 창고 대방출 세일'도 연다. 에어컨 행사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며, 사은품으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2매를 준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3일(수)

서울 60/60	26 / 31	인천 60/20	26 / 30
춘천 80/60	25 / 31	강릉 30/30	27 / 34
대전 30/60	25 / 32	전주 30/60	26 / 32
광주 60/60	26 / 32	대구 20/60	26 / 35
부산 60/60	26 / 31	창원 60/60	26 / 33
제주 60/60	28 / 33	지역 / 날씨	강수 확률 (오전/오후) /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8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